

세종총학생회장 비리 파문… 무책임한 사퇴



강성원 글로벌대 학생회장이 감사원장 선출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현진섭 세종총학생회장이 횡령 및 막말 논란으로 지난달 8일 사퇴했다. 내부고발이 나온 지 이틀만이다. 학생들은 총학생회장의 사퇴를 두고 무책임하다며 비판했다. 세종총학생회(세종총학)는 현진섭 전 회장에 제기된 의혹을 감사원을 조직해 조사할 예정이다.

9월 6일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세종총학 집행부원 A씨가 현진섭 회장의 ‘제휴비 횡령’ 문제를 폭로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총학생회장의 독단적 제휴 계약 △총학생회실 컴퓨터 무단 반출 △제휴비 전용 △문제 지적에 대한 태도를 지적했다.

A씨는 “왜 지속된 요청에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느냐”며 ‘B, C업체와의 제휴비 계약서’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총학생회장이 B업체에 100만 원을 회식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며 5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휴비 관련 문제를 제기한 A씨에게 ‘막말로 내가 먹었다고 쳐, 먹었다고 치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라고 말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도 지적했다.

이후 내부고발 당일 총학생회 회의에서 나온 현진섭 회장의 해명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D씨는 “총학생회장이 공개한 ‘제휴비 계약서’는 원본이 아닌 PDF 파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장이 회의에서 제휴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려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실제 회식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현진섭 회장은 같은 날 해명 글을 게시했다. 현 회장은 “제휴 계약서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소통의 문제였다”고 밝혔다. 비품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선 “당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으로 바쁜 것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총학생회실이 폐쇄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집행부원이 지적한 막말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자 해당 음성이 녹취된 파일이 에브리타임에 공개됐다. 9월 8일 현진섭 세종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무단 반출한 컴퓨터와 제휴비는 9월 14일 각각 환수 및 입금됐다.

본지 취재 결과 현진섭 전 총학생회장의 해명과 달리 총학생회실은 폐쇄된 적이 없다. 허정재 세종부총학생회장은 “소독할 때를 빼고 총학생회실이 폐쇄된 적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학대회에선 김희주(공정대 경제정책19) 씨가 감사원장으로 선출됐다. 감사원장은 학생회칙 제98조에 의해 선출돼, 선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원을 구성해야 한다. 감사원이 구성되면 현진섭 전 세종총학생회장의 ‘제휴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감사할 예정이다. 한편, 현진섭 전 세종총학생회장은 본지의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글 | 김인엽·최민서 기자 press@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

세종캠 동연제 개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축제 열려



뮤지컬 동아리 'K-ASTING'이 공연을 하고있다.

세종캠퍼스 동연제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세종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학생들은 28일, 학생회관 앞 주차장에서 동아리 부스와 주점을 운영하고, 29일에는 진달래관에서 동아리 공연을 진행했다. 이틀 동안 학생회관은 동연제를 받았없이 준비한 동아리들과 축제를 즐기기에 모인 학생들로 붐볐다. 이태윤(문스대 국제스포츠19) 씨는 “오랜만에 학교가 시끌벅적해서 좋다”고 전했다.

축제 열기로 가득한 학생회관

28일 오후, 학생회관 앞 주차장으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세종 총동아리연합회(비대위장=고은, 세종동연)를 비롯한 8개 팀이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사진 동아리 ‘파인디’(회장=김희주)는 분식을 판매하며 폴라로이드 사진관을 운영하고 탁구 동아리 ‘KUTT’(회장=기영욱)는 부원들과 함께 탁구를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세종동연 부스에서 타투 스티커를 붙인 박경민(글로벌대 융합경영22)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며 “꾸준히 대학 생활의 로망을 이뤘다”고 말했다. 세종동연은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달토끼와 사진을 찍으면 맥주 교환권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로 달토끼와 인증샷을 찍기 위한 줄이 길게 늘어지기도 했다. 동연에서 준비한 주점 좌석이 꽉 차자 잔디밭에 돛자리를 깔고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도 보였다. 이동건(과기대 환경시스템21) 씨는 “자리 잡기가 어려워 아쉽지만, 친구들과 축제를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학생

회관은 다음날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동아리들과 주점의 불빛으로 자정까지 밝게 빛났다.

학생들과 하나 된 공연

29일 오후 6시부터 동아리들의 공연이 학생회관 4층 진달래관에서 펼쳐졌다. ‘고대농악대’(대장=안선미)를 시작으로 5팀이 무대 위에 올랐다. 뮤지컬 동아리 ‘K-ASTING’(단장=송범희)은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가창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흑인음악 동아리 ‘비트앤소울’(회장=손원림)은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자작곡을 불렀다. ‘비트앤소울’ 회장 손원림(과기대 전기융합20) 씨는 “코로나19 이후 관객과 소통할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공연 중간에는 입장 전 나눠준 팔찌에 적힌 번호로 경품을 추첨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밴드 동아리 ‘무단외박’(회장=박성빈)의 공연은 많은 앵콜 요청을 받았다. 이 열기를 이어 스트릿 댄스 동아리 ‘UDF’(회장=문광주)가 무대를 선보였다. 마지막 호익음원단 ‘루터스’(단장=김세진) 공연은 관객과 하나가 돼 무대를 채웠다. 김주희(글로벌대 융합경영22) 씨는 “멋진 공연을 보고 선배,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쌓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직접 달토끼 탈을 쓰고 동연제를 홍보하고 공연을 진행한 고은 세종동연 비대위장은 “2년 만의 축제라 부담스러웠다”며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분배해 운영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글 | 최민서 기자 frog@
사진 | 김태윤 기자 orgnmind@

Global 금융허브를 선도하는 금융중개회사!

한국자금융중개(주)

“환율 고시기관”

국내 외 금융 기관의 Network 센터!

"이제 환율은 한국자금융중개에서 조회하세요"

www.kmbco.com

- 외환·파생부문 중개업무

 - 외환거래 및 외화콜 거래 중개
 - 이자율, 환율 관련 파생상품 거래의 중개
 - 매매기준율 고시
- 원화 콜거래 중개업무

 - 금융기관간 단기 과부족자금의 중개
 - Repo 및 담보콜 중개
- 채권 중개업무 (IDB)

 - 장외시장의 기관투자자(딜러)간 채권매매 중개
 - 양도성 예금증서(CD) 매매 중개